

# 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4. 05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목 차

1. 추락한 어업 강국 일본 .....3
2. 일중, 처리수-일본인 역류로 성과 보이지 않아 .....4
3. 서쪽지역 전갱이 60% 증가, 4월 고등어 20% 증가 5

□ 물고기 남획을 멈추지 않으면, 일본의 물고기는 고갈된다는 통계가 나옴.

- 어업생산량은 1984년을 정점으로 약 70% 감소했지만, 세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이 큰 양식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임.
- 일본 어업이 쇠퇴한 원인으로는 원양 및 근해 어업의 철수, 어종의 급감, 기후변화, 외국 어선에 의한 남획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음.
- 또한, 세계 수산물 가격은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입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임.
- 일본 어업의 문제 중 하나는 자원관리의 미흡함임.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에 반해, 일본은 턱없이 부족했음.
- 도쿄해양대학의 가쓰카와 토시오 준교수는 일본의 어획량이 2050년에 거의 0에 가까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함. 지속 가능한 어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함.
-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원관리에 더욱 세밀한 신경을 쓰기로 함. 2018년 어업법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개정된 어업법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관리가 시작되었고, 2021년부터는 개별할당방식(IQ)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어민과 어선별로 할당량을 세분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2023년도에 어획량을 444만 톤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처: 동양경제<sup>1)</sup>

1) <https://news.yahoo.co.jp/articles/37e4aa56863fe0a41ac8b5cf752b20834348243b?page=3> ('24년 05월 27일 검색)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6일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목표로 대화를 지속할 것을 확인.

\*전략적 호혜관계 : 대립점을 가지면서도 공동의 이익 확대를 지향하는 것.

- 그러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출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와 중국 내 잇따른 일본인 역류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음.
- 기시다 총리는 계속해서 대중국 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지만, 본격적인 개선의 길은 보이지 않음.
- 기시다 총리는 "전략적 호혜관계는 일중 관계를 큰 틀에서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강조했고, 리 총리는 "평화공존, 우호협력이야말로 중일관계에서 우선시 되어야하며,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함.
- 기시다 총리는 금수 조치의 즉각적인 철폐와 일본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동-남중국해 정세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동시에,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의 추진을 촉구하고, 리 총리와 '정당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출처: 시사통신사<sup>2)</sup>

2) <https://news.yahoo.co.jp/articles/fb64e78502653c00d19383048ae57ae4f90b6674> ('24년 05월 27일 검색)

- 일본원양선망수협이 집계한 서일본 해성선망의 서일본 지역의 4월 어획량이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1만 2,714톤으로 나타남. 주력인 전갱이와 고등어 모두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함.
  - 총 21척의 서일본 대형선망 선단은 4월 나가사키 현 코토 서쪽 해안에 약 8척, 동현 쓰시마 앞바다, 동중국해, 산인 앞바다에 각각 약 3~4척이 출어함.
    - 전갱이 고등어 뿐만 아니라, 참다랑어 어획도 호조를 보임.
  - 전갱이는 62% 증가한 3,835톤이었으나, 가격은 36% 하락한 195엔/kg, 고등어류 어획량도 22% 증가한 4,451톤이었으나, 가격은 14% 하락한 87엔/kg를 기록함.
    - 특히 겨울철에 풍어였던 고등어의 시세가 안정적이었음.
  - 각 지역별 어획량과 평균 가격은 다음과 같음 :
    - 나가사키: 22% 증가한 8,016톤, 13% 하락한 167엔/kg.
    - 가라쓰: 35% 증가한 2,837톤, 28% 하락한 137엔/kg.
    - 후쿠오카: 48% 증가한 1,685톤, 37% 하락한 118엔/kg.
    - 가고시마: 2.4배 증가한 1,76톤, 32% 하락한 114엔/kg.

※ 출처: 미나토신문<sup>3)</sup>

3)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2989> ('24년 05월 27일 검색)